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여성,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어디로 가야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하고 다급한 문제이다. 급속한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의 변신과정에서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적응하며 어떤 방향을 찾아 가야 하는 것인가?를 자문해볼 겨를도 없이 세속적 흐름에 밀려 우리의 정체(正體)성을 잃어버린채 어디론가 떠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정점(頂点)에 서서 기독교여성으로서 우리의 당위(當爲)상(像)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이 사회, 이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의 방관(傍觀)자가 될 수만은 없다.

여기서 먼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봄으로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 여성의 당위의 모습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1. 초기교회 여성

우리나라 전근대화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란 비참 그 자체였다.

주자학(朱子學)을 기초한 사회문화 속에서 남녀(男女) 유별(有別)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천지의 질서와 나라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남녀칠세부동석이니 삼종(三從)지도, 또는 수신(修身) 제가(齊家) 후(後) 평천하(平天下)라는 등의 원칙들은 그 당시 여성들을 집에 가두어둔 문서 없는 종과 같이 살아야만 했던 이유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혹 상류가정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을 들면 부덕(婦德), 부언(婦言), 부용(婦容), 부공(婦功) 등을 들 수 있다.

- 1) 부덕(婦德)은 재질이나 총명 보다도 맑고 조용하고 정절한 것을 뜻하며
- 2) 부언(婦言)이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가리어 하고 나쁜 말이나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 3) 부용(婦容)은 얼굴을 꾸미기보다 깨끗하면 좋고 옷을 산뜻하고 청결하게 입는 것을 가르킨다.
- 4) 부공(婦功)은 재주보다 길쌈에 전심하고 음식을 깨끗이하여 손대접을 잘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모(賢母) 양처(良妻)가 우리사회에서의 이상적 여성상이었다.

이규태 선생은 우리 봉건사회에서의 여성을 가르쳐 “움직이는 망부석”이라고 했다. 이런 억압된 환경에서 한국여성은 특징적으로 인(忍) 고(苦) 성(性) 향(向)이 키워졌다고 한다. 한편 오랫동안 눌러서만 사는 동안 그 농축된 긴장감은 어느때든 폭발적인 힘을 갖고있어서 마치 고무풍선이 눌려지면 한쪽으로 터치듯이 맹렬(猛烈)성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1. 초기교회 여성의 특징과 영성

초기교회 여성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은 집에서 가만 있을 수 없는 열정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래서 저마다 전도인으로 변신되어 핍박과 멸시를 무릅쓰고 개인전도에 그 맹렬성을 발휘했다.

- 여전도회 조직, 전도부인들, 박원신 권사, 여선교사 파송
- 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내려는 강한 교육열
-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자 한알의 밀알로 순국한 여성들 : 유관순, 김마리아, 하란사, 애국단체 송죽회...등
- 을사보호조약과 여성들...일사를 각오한 이한영의 부인
- 기독교적 진리에 입각한 사회건설을 위한 혁신운동에 여성단체, 여우회, 진명부인회

진명부인회의 시행사항을 요약하면

“의복과 음식은 검소케하여 사치를 금할 것

언어와 행동은 단정히 할 것

가장을 공경하여 집에 화기가 있게 할 것

자기의 부귀를 믿고 남의 가난함을 비웃거나 업수히 여기지 말 것 등“

- 신여성은 기독교 여성, 유행을 만듦.
- 구국적 차원에서 농촌운동, 이상촌 건설운동, 문맹 퇴치운동, 금주금연운동.
-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운동 : 방애인
- 공산당의 손에 순교한 여전도사들

김순호 선교사 : “나는 전도하다 죽으려 북(北)으로 간다”

백인숙 전도사 : “내 몸의 좋은 옷은 걸치지 않기로”

장수은 전도사 : “언제나 피흘릴 각오를 가져야”

김경순 전도사 : “한마리 양이 남아 있어도 나는 안갑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불쌍한 내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던져 이 땅에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순교의 피를 뿌려 한국교회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이 어둡던 사회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선배들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만난후 맹렬성을 띤 하나님 사랑과 민족사랑, 이웃사랑으로 한알의 밀알 되기를 기뻐했음을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화와 개화를 앞당기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들은 이름없이 빛도 없이 우리 한국교회 성장의 기초를 닦았고 우리민족의 독립과 근대화에 견인차의 역할을 감당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어머니들이었다.

이들이 그토록 큰 역사를 이룰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과 그의 능력에 온전히 위탁한 영적생활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 뿐이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험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한편 이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생각에 의(義)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생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세속사회에 오염되지 않은 생기 넘치는 여성사역자로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II. 병든 사회에 서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지식수준이 높아졌고 여성의 법적 지위도 평등해 졌으며 문화생활도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졌다. 그 무섭던 사회의 제약에서 자유를 얻어 외적으로는 한국여성사 중에 가장 행복한 시기에 살고 있다. 교회도 성장하여 인구 4분의 1이 기독교인임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교회에 비교해 볼 때 오늘의 기독교여성은 이 병들고 부패한 사회 속에서 말아래 등불처럼, 밭히는 맛있는 소금처럼 무력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세속에 빠져 구별된 생활을 못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꿈도 잃었고 용기도 없이 무기력하기 끝이 없이 서 있는 것이다.

안영섭 선생은 그의 “한국사회증후군”에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 무분별한 이기주의
- 벼락부자(줄부형태)
- 존경부재(不在)
- 연고주의
- 황금만능주의
- 사치. 화려
- 과시병
- 임시변통주의

위의 여덟가지 위에 한둘 더 첨가하고 싶다.

“경쟁위주”다. 모든 것을 경쟁을 위주로 살고 있다. 의(衣) 식(食) 주(住) 뿐 아니라 자녀교육에 있어서마저 경쟁적이다. 왜 뛰어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뛰는지를 생각해 볼 여지도 없다.

특별히 교회여성들에게 있어서 또 한가지 병은 무사(無事) 안일(安逸)주의병이다. 공주병의 연장인지 명품을 입어야하고 궁전처럼 꾸며야 하는 등 사치와 허영에도 맹렬성향을 띄고 있다. 초기교회여성들이 가졌던 새역사 창조의 비전을 잃고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고 분주히 다람쥐 쳄바퀴 돌 듯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인으로서의 확고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있는데다 경건한 생활의 원칙이 없고 훈련될만한 장(場)이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의 삶의 Model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영성이 약해진 탓이다. 초기교회 여성들이 지식과 경제력에 용감히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성도로서 세대를 분반지 않을 수 있는 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외적으로 화려하고 풍요로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의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련하고 참담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계3,19)

III. 성령으로 Make-up 한다는 것은?

여성의 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Make-up은 결혼하는 날이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신랑을 만나기 위해 단장을 해야한다. 그 날은 오고 있다. 신부는 신랑의 마음에 들도록 단장한다. 그분의 영을 받아 그의 뜻을 따르며 살기 위해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그의 피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그와 동행하며 그를 섬기는 삶이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며 만물을 사랑하며 그분을 즐기는 것이다.

-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잠기는 것
 - 기도는 주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 기도는 세욕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순간순간 막아내는 것 :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박는 것
 -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주의 손으로부터 감사함으로 받는 것
 - 기도는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싸움 : 항상 십자가에 서 있기 위하여..
-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의 삶의 초점이 되기 위해 밤낮 나의 내적(內的) 성찰(省察)에만 주력하며 세상을 거스리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맺는 말

초기교회 여성들의 생명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나의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Make-up 되어 있는가? 주님의 피로 지워버리고 성령으로 새로 Make-up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생활이 기도요 기도가 생활이 되기 위해 고쳐야 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내가 변해야 교회와 이 사회가 변한다. 이 사회와 이 나라는 나의 무책임성, 무관심 때문에 이토록 병이 들었다. 이 땅의 역사를 짊어지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성령으로 단장된 여성은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 이 땅의 양심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하며 다가오는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사랑의 나눔을 연습하는 일을 한다. 만물이 탄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동산지기로 나에게 맡겨지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아간다. 우리 선배들의 피가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